

대인예술야시장 '별장' 문 엽니다



최경남 작 '비행 연습'

◀지난해 대인예술시장 야시장 '별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셀러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18일 올 첫 행사

'울 실내악단' '가연하비'

'어화동등 정유년' 국악 향연

25일 판소리·남도민요 선사

음서감서 체험장도 오픈

한평 갤러리 '맛있는 미술'

내달 11일까지 새해 첫 전시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한국관광도시 100선'에 선정된 대인예술시장 야시장 '별장'이 기지개를 켜다.

개장 9년차를 맞은 '별장'은 올해 미술·음악 등 매체·장르 간 융·복합을 시도하고 중견·청년 작가 콜라보 작업을 유도해 아트플랫폼 진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히 3월부터는 사업팀·상인·시민셀러들이 돌아가며 주관을 맡는 '삼색(三色) 야시장'을 개최해 자생력 갖추기를 시도한다.

올 첫 행사가 열리는 2월(18·25일 오후 7~12시) 주제는 '씨앗과 함께 춤추는 달'이다. 시장이라는 현장에 인문학 씨앗을 파종하고 함께 춤추는 예술행위를 통해 인문예술시장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18일 야시장에서는 '어화동등 정유년'을 테마로 국악 대향연이 펼쳐진다.

극단 '갯돌'이 참여해 거리 곳곳에서 길놀이와 지신밟기를 하며 별장의 힘찬 출발과 함께 희망이 가득한 정유년을 기원한다. 이어 신시사이저와 가야금, 대금 연주자로 구성된 '울 실내악단'이 나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연주하는 등 퓨전국악을 선보이며 흥겨움을 더한다. 젊은 가야금연주단 '가연하비' 공연도 눈길을 끈다. 정선숙 가야금

명인과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가연하비'는 이번 행사에서 '렛잇비', '오블라디 오블라다', '백만송이 장미' 등 팝송과 가요, 가요, 민요 등을 가야금 선율로 들려줄 예정이다.

25일에도 다양한 남도 소리를 즐길 수 있다. 정가(正歌) 남도민요를 계승한 이성순 명창이 참여해 가사(歌辭)와 시조, 장 등 전통음악을 선사한다. 한우리 국악단은 대금 산조·판소리 단가·남도민요를 공연하며 국악인모임 '청출어람'은 가야금 병창·이성강류 대금 산조·판소리 혼합가 등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대인시장 제2주차장에 마련된 음서감서 체험장도 오픈한다. 야시장이 열리는 동안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나무꼬지 등 재활용 쓰레기를 이용해 화분을 만드는 리사이클링 팻(Recycling Pot)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자원 재활용과 씨앗을 심으며 자연과 생명에 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자리로, 직접 만든 화분은 집에 가져갈 수 있다.

매달 다양한 기획 전시를 개최하고 있는 한평 갤러리도 '맛있는 미술'로 16일부터 3월11일까지 새해 첫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강부연·김다인·김빛나·이명은·이정은·채경남 등 청년작가 6명이 참여

한다. 박근혜 대통령 등 현 시대를 어지럽힌 인물들이 서로 눈을 떠먹여 주는 '오늘의 메뉴'(김빛나)를 시작으로 현대인을 담을 비유한 이정은 작가의 '퇴화'를 감상할 수 있다. 또 '숨은 관찰자 찾기'(김다인)는 거센 파도 속에 위태롭게 떠있는 배들을 공중에서 바라보는 눈을 그려 사회를 풍자한다.

그밖에 하얀 국화로 캔버스를 채운 '국화-동동'(강부연), 머리에 닭을 이고 달리는 어린이가 등장하는 '비행연습'(채경남) 등 밝은 이미지 작품도 출품한다.

한편, 별장사업팀은 대인예술시장 내 아트컬렉션숍 '미담' 운영자와 셀러스튜디오 입주작가를 공모한다. 아트컬렉션숍 운영자는 지역 문화상품 판매와 함께 다양한 기획사업을 추진한다. 접수는 28일부터 3월9일까지다. 10명(팀)을 모집하는 셀러스튜디오 입주자에게는 창작공간이 지원되며 별장에서 상품 판매 기회를 제공한다. 오는 27일까지 별장프로젝트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blog.naver.com/byeoljjang)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062-233-14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나명주 작 '국과수 5·18 탄환흔적 조사'

'현장의 눈빛'

광주·전남보도사진전... 22~27일 신세계갤러리

지난 1년간 지역 사진기자들이 국내외를 누비며 찍은 피땀어린 결과물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현장의 눈빛' 2017 광주·전남보도사진전이 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한국사진기자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최현배) 주최로 열리는 전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광주지역 일간지 사진기자들이 국내·외에서 취재한 사진 100여점을 선보인다.

지난 해 4월 여수 무궁화호 탈선 사고, 무안 경비행기 추락사고, 영광 칠산대교 붕괴 등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를 비롯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기총 소사 논란 등 사진기자들이 발로 뛰며 만들어낸 작품들이 전시된다.

비엔날레 등의 문화행사, 광주와 전남에서 열렸던 흥미로운 축제장의 모습을 담아낸 사진 등도 접할 수 있다.

또, 2016년 하반기부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촛불집회 현장을

기획전으로 구성돼 관람객과 지역민들을 찾아간다.

최현배 회장은 "이번 전시작품들은 사진기자들이 현장에서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다"며 "작품 하나하나를 통해 역사의 현장에 서 묵묵히 일하는 사진기자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다음달 9일부터는 전남도청 운선도홀에서 일주일간, 21일부터는 담양 국제청소년교육재단 내 유당갤러리에서 한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993년 아시아나 항공 추락사고를 취재하다 순직한 박경완 기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돼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박경완 기자상'에는 지난해 5월 곡성에서 열린 '곡성세계장미축제' 현장에서 열렸던 흥미로운 축제장의 모습을 드론을 이용해 취재, 보도한 광주주일보 김진수 기자가 수상했다. 시상식은 22일 오전 10시에 개막식과 함께 열린다. /김진수기자 jeans@



김진수 작 '백남기 운구행렬'



루브르박물관 보티첼리·다 빈치 작품 감상

인문학 시민공동체 '인문지행' 21번째 문화예술기획이 오는 19일 오후 2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앞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파리 루브르 박물관 소장품을 집중 감상하는 시간으로 첫회에서는 '보티첼리와 다 빈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번에 중심으로 다루는 작품들은 보티첼리의 '자유 학에 모임 앞의 젊은 남자', '성 요한과 함께 있는 성모자' 등과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암굴의 성모'(사진), '모나리', '세례 요한' 등이다. 그밖에 피사넬로의 '젊은 공주의 초상화', 미켈란젤로의 '죽어가는 노예'도 만나본다.

'인문지행' 문화예술기획 19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

인문지행은 문화예술기획을 통해서 명작에 담긴 예술적 가치를 공유하며 인문학적 가치의 확장을 지향한다. 인문지행 대표 심옥숙 박사가 기획과 진행을 맡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cafe.daum.net/h-arete. 문의 010-2656-9208/010-5205-5668. /김미은기자 mekim@

M갤러리 대관안내

-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아프리카 쇼나조각

아프리카 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 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관망연선 18)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